



##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포트 르포르타주

취재 / 사진: 이순영, 이성재

분석 및 가공 :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이 성재 (트렌드 리서처)



테마명: **Merck Korea**

Design Center

최영섭 소장

한국 머크 (MERCK Korea)  
디자인 센터 최 영섭 소장  
단독 취재



오전 미팅을 위해 평택에 있는 디자인센터에 방문했다. 주차장까지 나와서 우릴 반기신 분은 바로 머크 코리아 디자인센터 최영섭 소장이다.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아니,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료 엔지니어링 전문가이다. 아마 많은 칼라 디자이너들이 최영섭 소장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머크는 독일이 자랑하는 거대한 화학기업이다. 머크 사업분야는 총 5가지로 Merck4Pharma, Merck4Food, Merck4LCDs&Emerging Technology, Merck4Biosciences, Merck4Cosmetic, Merck4Printing, Plastics, Coatings로 나누어진다. 총 53국가에 204개의 현지 법인이 있으며 그 중 28개 국가에 62개의 생산기지가 있다. 제약회사로 알려지기도 하고 자동차 도료 및 모바일폰, 가전전자 제품 도료와 색상제안으로도 알려진 독일 Merck그룹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전(2004년 9월) 평택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국내에서도 머크 도료를 사용한 칼라제안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머크는 프랑스 트렌드 업체 Peclers가 제안하는 예측 칼라 트렌드를 제안 받아 매년 한국, 브라질,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5개국에 코스메틱 예측칼라를 제안하는 목업 샘플을 제안한다. 특히, 독일 머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니쿠퍼, BMW와 같은 자동차 칼라를 제조하는 업체로도 유명하다.



머크 코리아 디자인센터/  
Photo: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머크 코리아 디자인센터 소장 최영섭/  
Photo: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머크 코리아 디자인 센터 (Merck Korea Desig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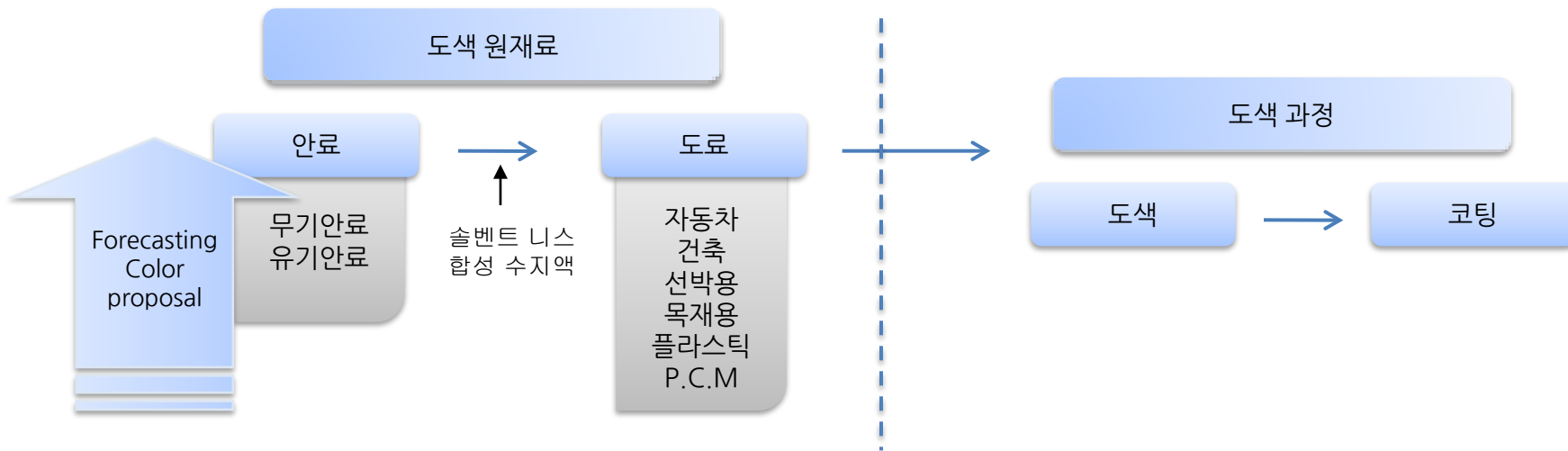
평택에 위치한 머크 코리아 디자인센터에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 최영섭 소장님이 대접해 주신 점심을 먹고 소장님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마치 칼라 실험실과 같았다. 최영섭 소장님이 직접 디자인한 유리로 된 데스크가 눈에 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칼라리스트인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자동차 모형 목업 샘플이 디스플레이 되어있다.

7년 전 프랑스 파리 Peclers본사에서 일할 때 독일 머크 본사 디렉터가 직접 건네준 작은 자동차 모형 목업 샘플이 기억났다.

디자이너들 사이에 흔히 '카멜레온' 칼라로 불리는 머크만의 특허기술이 있다. 바로 'Color stream'이라는 도료이다. 이 안료의 특징은 빛에 따라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을 연출 한다는 것이다. 2가지 혹은 3~4가지까지 가능한 이 기술은 펄 도료를 연출하는 머크 칼라에서 가능한 부분이다. 즉, 발색이란 분자와 입자의 차이에서 오는 알맹이 사이에 코팅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분산력이 좋을수록 착색력이 좋아져 'color stream'과 같은 칼라임팩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화학적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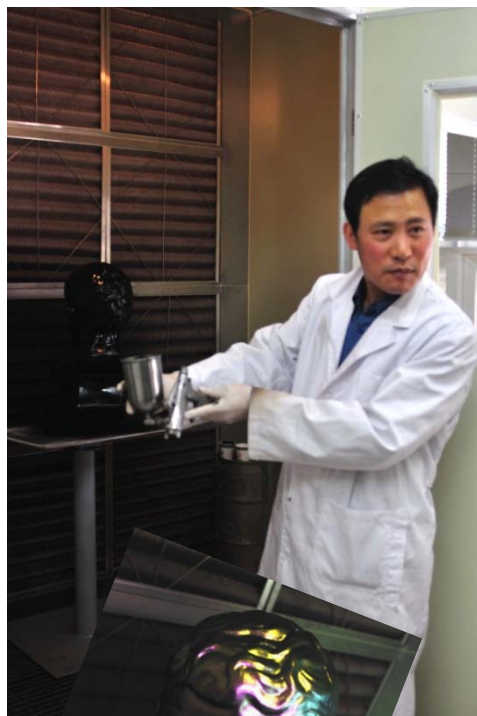
안료자체를 분산시켜 염료를 분자화시키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료는 패션 텍스타일에서 부터 자동차, 가전, 모바일폰, 코스메틱 패키지 케이스까지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료는 분산과정을 거쳐 도료가 되는데 안료를 도색하는 과정이 좀더 흥미롭다.



도료 업체나 페인트 업체의 전문가가 아니면 도료와 안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다. 안료는 도료 및 합성수지, 화장품, 제약 등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 분말상의 착색제(着色劑)이다. 안료는 흰색 또는 유색이며, 솔벤트 (solvent), 니스, 합성 수지액, 아라비아고무 등과 섞어서 착색하게 된다.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며, 종류에 따라서 은폐력, 착색력, 선명도 등에 다르며 각각 사용하는 분야가 다르다.

도색의 퀄리티 (quality)는 도색을 한 후 마지막에 보여지는 발색에 의하여 평가된다. 그 때문에 도료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안료와 안료의 분산력, 은폐력, 컬러, 이펙트 등이 매우 중요하다. 도료는 사용되는 제품 및 용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도료가 사용되며, 그 과정 및 단계 또한 다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는 다르게 30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 도색작업이 이루어지고, 각 단계에 쓰여지는 도료 또한 그 성격과 용도가 다르다.

또한 안료는 크게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구분 할 수 있고, 이는 물에 녹는 성질의 안료와 그렇지 않은 성질의 안료로 구분하는 것이다. 유기 안료의 경우 물에 녹지 않으며, 경화제 및 솔벤트의 사용량이 높아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에 그다지 좋지 않다. 그 때문에 물에 녹는 무기 안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코팅을 통하여 색을 유지한다.



코리아 머크는 국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컬러를 맞춤 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컨설팅 또한 진행하고 있다. 최영섭 소장님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안료의 개발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개발된 안료는 국내 도료업체에 공급되어 양산 단계에 쓰인다. 국내도료기업으로는 자동차, 인테리어 도료를 전문으로 하는 KCC와 건설화학 분야 도료를 전문하는 K아 (제비표 페인트), 자동차와 가전전자 도료를 전문으로 하는 DAC (노루표, 대한페인트)가 있으며 대우와 쌍용 중공업(선박용) 도료를 전문으로 하는 PPG (동주산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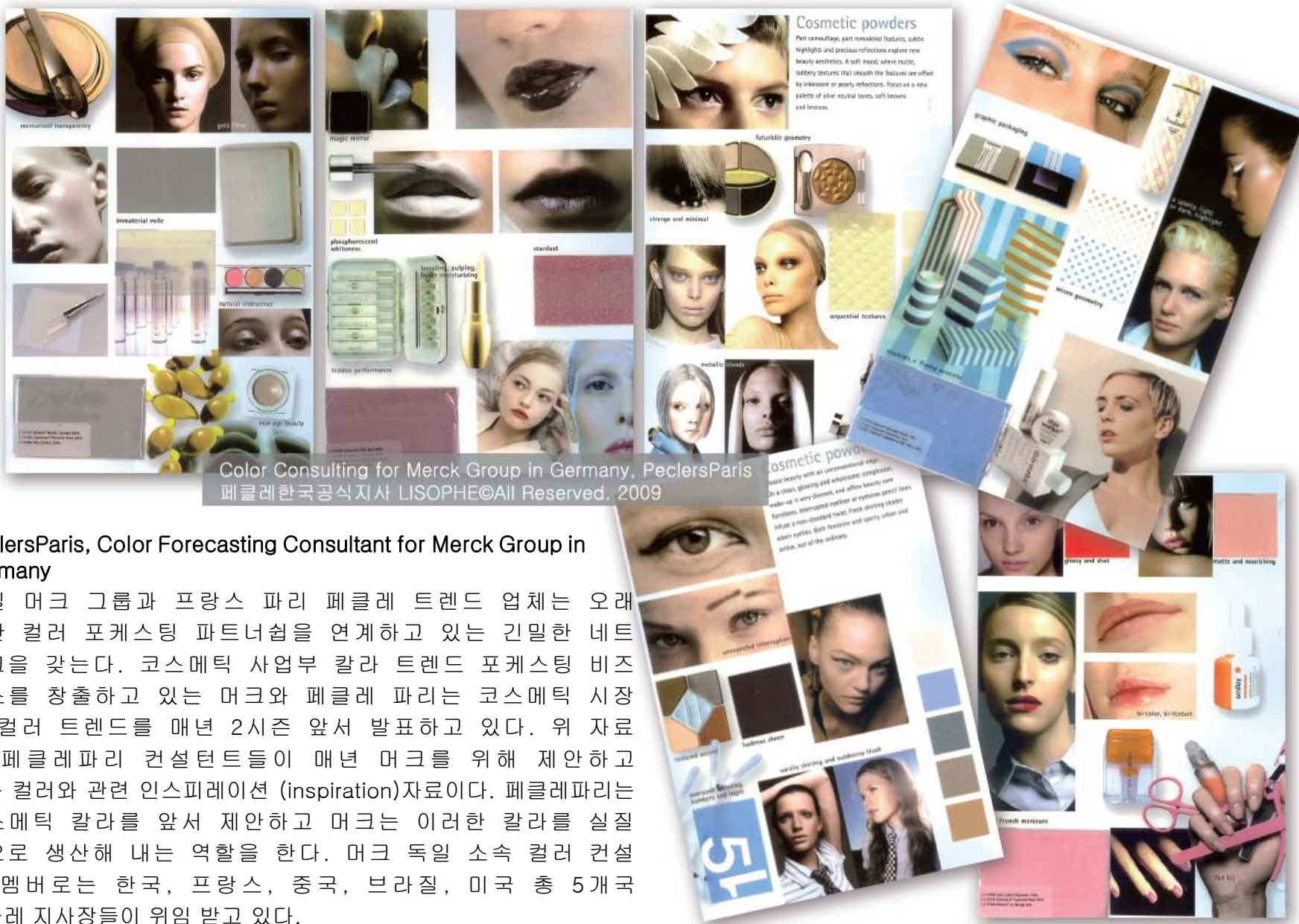
머크 코리아 최영섭 소장은 우리에게 직접 칼라 도색과정을 보여주며 도색 한 아그리빠 석고상을 선물로 제공한다.

1.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2. 코팅 안료: 핑크+블루

분야별 적용에 따른 펠의 종류:

1. 산업용: 공업용 페인트/ 잉크/ 플라스틱 페인트/ 기능성 안료
2. 자동차용: 외 장재용 페인트
3. 화장품용 펠





## PeclersParis, Color Forecasting Consultant for Merck Group in Germany

독일 머크 그룹과 프랑스 파리 페클레 트렌드 업체는 오래 동안 컬러 포캐스팅 파트너십을 연계하고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는다. 코스메틱 사업부 칼라 트렌드 포캐스팅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 머크와 페클레 파리는 코스메틱 시장의 컬러 트렌드를 매년 2시즌 앞서 발표하고 있다. 위 자료는 페클레파리 컨설턴트들이 매년 머크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컬러와 관련 인스피레이션 (inspiration) 자료이다. 페클레파리는 코스메틱 칼라를 앞서 제안하고 머크는 이러한 칼라를 실질적으로 생산해 내는 역할을 한다. 머크 독일 소속 컬러 컨설팅 멤버로는 한국, 프랑스, 중국, 브라질, 미국 총 5개국 페클레 지사장들이 위임 받고 있다.

## 최영섭

- 머크 주식회사 디자인센터 소장
- 색상 디자인 및 컬러 제안으로 신규 비즈니스 창출
- 색상 디자인 및 제안을 통하여 coating, PPS 및 Cosmetic팀 지원
- CFT 자문위원
- 지식경제부 기업 평가위원
-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색채전공 겸임 교수
- KDK를 통한 자동차 페인트 경험

